



우리, 스위스 식탁에서 만나요.

랑데뷰(Rendez-vous) 캠페인 론칭

정성 들인 요리 앞에 두고 함께 모여 봐요
친구와, 동료와, 가족과의 시간이 그리웠으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요식업계, 고생 많으셨죠
힘들었던 모두를 위해 특별한 식탁을 차려봤어요

스위스정부관광청은 스위스로 다시 떠나는 날을 꿈꾸며 ‘나, 스위스 가면 꼭 한다’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스위스 레스토랑이 그 주인공이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며, 스위스에서도 가장 타격을 입은 업계 중 하나가 요식업이었다. 봉쇄 조치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스위스 레스토랑을 위해 스위스정부관광청은 스위스 요식업 협회인 가스트로스위스(GastroSuisse) 및 스위스 호텔인 협회인 호텔러리스위스(HotellerieSuisse)와 함께 “랑데뷰” 캠페인을 최근 론칭했다.

이는 스위스에서도 아름답기로 소문난 레스토랑에 친구, 동료, 가족과 함께 모여 유쾌한 한 끼를 해보자는 취지로, 팬데믹 이후 벌이는 최초의 전국적인 외식 행사다. 이 행사를 계기로, 스위스 전국의 관광 및 요식업계가 그 동안의 고통을 딛고 예전의 본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크게 반영됐다. 스위스 요리에 대한 인식 고취와 레스토랑 방문자 수 증가를 목적도 담겼다.

이를 위해 스위스에서도 아름답고 특출하기로 정평 난 80 여 개의 레스토랑이 선정됐다. 실제로 가스트로스위스가 시행한 2021년 조사에서 70%의 응답자가 팬데믹 이후 외식을 즐겼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의 스위스 국민은 다시 레스토랑에서 친구와 가족을 만나고 싶어 하는 갈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한 자신감과 모두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큼 스위스의 다채로운 미식 체험을 다시 선보일 때가 왔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이번 캠페인이 기획되었다.

스위스정부관광청 CEO인 마틴 니데거(Martin Nydegger)는 “여행지를 선택할 때, 미식 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향성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번 랑데뷰 캠페인은 고통스러웠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호스피탈리티 업계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생기 넘치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위스로 다시 여행을 계획하는 여행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좋은 체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캠페인에 응모한 스위스 전역의 레스토랑은 150 개가 넘었으며, 이 중 80 의 테이블이 선별되었다. 그중에는 맥주 양조장에 차려진 테이블과 세간티니(Segantini) 하우스에 차려진 예술적인 분위기 가득한 테이블부터 취리히(Zürich)의 트렌디한 레스토랑에 차려진 침대 테이블과 나무와 들판, 야생화가 지천인 테이블까지 다채로우면서도 독창적인 분위기가 돋보이는 레스토랑이 시선을 모은다.

엔틀레부흐(Entlebuch)의 지극히 개별적인 예술적 양조

루체른(Luzern) 근교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엔틀레부흐에 특별한 식탁이 차려진다. 에브넷(Ebnet) 마을에 있는 린덴호프(Lindenhof) 호텔에 자리한 레스토랑이다. 기다란 오크 테이블에는 4에서 8 인이 둘러 앉을 수 있는데, 엔틀레부흐 양조장이 한눈에 들어온다. 양조장 분위기를 한껏 고취시키기 위해 인더스트리얼한 분위기로 디자인된 룸에 마련되었다. 호프, 몰트의 향과 함께 맥주



양조에 있어 예술적 경지를 체험할 수 있다. 하우스 맥주에 조리한 브라트부어스트를 비롯해 다채로운 요리를 맛볼 수 있다.

www.lindenhof-ebnet.ch

루체른 지역 하슬리베르크 - 야생화 테이블

루체른 호수 지역의 하슬리베르크(Hasliberg)에서는 하이디의 정취를 느끼며 식사를 할 수 있다. 언덕의 남쪽에 163 년이나 된 알프스식 목조 오두막 하나가 있는데, 사랑스럽고 정겨운 레스토랑으로 개조되었다. 시골풍 알프스 아침 식사를 체험할 수 있는데, 신선한 버터빵, 홈메이드 잼, 뢰슈티, 로컬 육류, 치즈가 한가득 채워진다. 해발고도 1640m 에 있는 발리스알프(Balisalp)는 야생화 가득한 목초지라, 테이블도 가지각색의 들꽃으로 소박하지만 화려하게 차려입어 더욱 특별하다.

www.balis.ch

루체른 지역 말터스 - 시골 들녘의 테이블

루체른(Luzern)에서 멀지 않은, 말터스(Malters) 마을에서는 초원 한복판에 식탁이 차려진다. 가스트호프 크로넨 블라텐(Gasthof Krone Blatten)을 찾으면 된다. 농장과 들판에 둘러싸인 테이블은 주변의 산악 풍경과 널찍한 초원 풍경을 한 아름 안겨준다. 숲의 가장자리에 있는 나무가 시골 풍경을 더욱 고취시킨다. 정원에서 자라나는 식물과 털로 장식한 시골풍 식탁, 그 위에서 한들대는 촛불이 정겹기 그지없다. 이 지역에서 난 제철 재료로 정성껏 만든 시골풍 메뉴가 풍경과 딱 들어맞는다. 비가 올 경우, 와인 셀러로 테이블을 옮긴다.

www.krone-blatten.ch

취리히 - 루프탑에서의 파티

취리히(Zürich)에 있는 호텔 레스토랑 헬베티아(Helvetia)가 트렌디한 루프탑에 시골벽적인 테이블을 차린다. 리마트(Limmat) 강과 취리히의 구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루프탑에서 도심으로 조용히 내려앉은 화려한 노을을 바라보면서, 합한 드링크를 훌쩍이며 유쾌한 저녁을 시작할 수 있다. 유틸리베르크(Üetliberg)부터 프라임 타워(Prime Tower)까지, 카지노부터 파라데플라츠(Paradeplatz) 광장의 아우구스티너키르헤(Augustinerkirche) 교회까지 이르는 드넓은 풍경은 덤이다.

www.hotel-helvetia.ch

취리히 - 우리 모두 축배를!

취리히의 네니(NENI) 레스토랑에서는 맛있고, 재미있고, 시골벽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아침이나 저녁, 폭신한 침대에 친구 셋이 모여 거창한 축배를 든다면? 그리고 이 대단한 무대가 레스토랑에 있다면? 이 아늑한 호텔 객실 같은 공간에 폭 빠져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된다. 침대 옆에는 시원한 음료와 품미 좋은 와인이 갖춰진 미니바까지 마련되어 있으니 말이다. 침대 위에서는 잊지 못할 순간을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남길 수 있다. 주방에서는 다채로운 메뉴를 끊임 없이 내놓을 수 있으므로, 원하는 대로 주문만 하면 된다.

www.neni.ch

베른 - 대통령 혹은 왕의 식탁

베른(Bern)에 특별한 정찬이 차려진다. 4 코스의 국민 만찬이 벨뷰 팔라스(Bellevue Palace)에 마련된다. 스위스 연방의 수도다운 만찬이다. 국회의사당 바로 옆에서 한 나라의 정상다운 식사를 체험해볼 수 있다. 호텔의 프레지덴셜 혹은 타워 스위트에는 최대 4 인이 둘러 앉을 수 있는 원탁이 차려진다. 창밖으로는 베르네제 알프스(Bernese Alps)와 아레(Aare) 강의 풍경이 잔잔히 흐른다. 일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체험이다.



www.bellevue-palace.ch

세간티니(Segantini) 생가에서 그의 예술과 함께 하는 프라이빗 다이닝

생모리츠(St. Moritz)에서 멀지 않은 작은 마을, 말로야(Maloja)에는 세간티니의 집(Casa Segantini)이 있다. 세간티니의 가족이 안내하는 프라이빗한 가이드 투어 후에는 스튜디오에 차려진 캔들라이트 디너를 즐길 수 있다. 이곳은 지오반니 세간티니와 그의 인생 동반자였던 비체 부가티(Bice Bugatti)가 거주했던 곳으로, 알프스의 품에 안겨 수많은 작업을 남긴 곳이다. 3 코스 메뉴가 더욱 예술적으로 느껴진다. 베르니나 특급(Bernina Express)나 빙하특급(Glacier Express) 여정을 이어가기 좋다.

www.segantini.org

참가 업체들과 자세한 정보는 스위스정부관광청의 랑데뷰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테이블도 직접 예약할 수 있다.

MySwitzerland.com/rendez-vous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